

제1차 임시이사회기록

-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07시30분
- 장 소 : 법인 사무실
- 참석 이사 : 대표이사 윤 옥선, 이사 신원철, 이사 안재현,
이사 최기은(총7명/출석4명)

- 안 건 : 법인 농지용 굴삭기 매각처리(안)심의

- 윤옥선 대표이사 : 성원확인 후 이사 7인 중 4인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제 1항에 의거하여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의사봉3타)

- 윤옥선 대표이사 : 2018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함에 앞서 이른 시간임에도 이사 전원이 참석해주심과 늘 법인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심에 있어 이사님 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다.


- 안건상정 및 심의사항

- 윤옥선 대표이사 : 금번 제1차 임시이사회 의안으로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의 매각 처분과 관련하여 농지용 굴삭기 매각처리(안) 심의를 법인정관 제6조 및 제26조제6항에 의거하여 상정하다. (의사봉 3타)
 - 심의안건의 의결주문 및 제안사유를 설명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

 - 임시이사회 자료와 불임자료를 중심으로 법인소유의 농지용 굴삭기 매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다.

- 안재현 이사 : 현재 굴삭기의 사용여부에 대해 묻다.

- 윤옥선 대표이사 : 제안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제작된 장비로 2006년도에 강화실버빌이 개원하기 전 농지정리용으로 사용하던 굴삭기로 장비가 노후화되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현재 용도가 없고 굴삭기 활용할 면허소지자가 없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최기은 이사 : 법인 재산이지만 사용할 수 없으면 불용처리하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굴삭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 묻다.
- 윤옥선 대표이사 : 강화실버빌 인근 영농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하여 구입해 활용하고자 매입의사를 밝혀 법인에서 용도가 없으면 매각하는 것이 불용 처리하여 고철로 매각하는 것 보다는 매각비용이 높아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하다.
- 신원철 이사 : 2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기계이기도 하고, 조작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가 없다는 점도 그렇고, 설령 조작이 가능하더라도 법인에서 현재 굴삭기를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매각대금의 경우 운영이 어려운 강화실버빌로 전입시켜 운영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이야기 하다. 
- 안재현 이사 :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사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사용가능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면 지속적인 정비를 받아야 하니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럽고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야기 하다.
- 최기은 이사 : 여러 의견이 굴삭기를 매각하는 것이 법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므로 법인소유의 농지용 굴삭기를 매각처리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다.
- 신원철 이사 : 동의하다.
- 안재현 이사 : 재청하다.
- 윤옥선 대표이사 : 다른 의견 없는지에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 후 법인 농지용 굴삭기 매각(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정관 제 2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 윤옥선 대표이사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이사회에 참석해주심에 재차 감사를 표하고, 기타 안건이 없는지 묻고 폐회에 대해 동의를 구하다.

○ 최기은 이사 : 폐회에 동의하다.

○ 안재현 이사 : 재청하다.

○ 윤옥선대표이사 :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의를 마치고, 07시55분에 폐회를 선언하다.(의사봉3타)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날인하다.

2018. 9. 5.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윤 옥 선 (인)

이 사 신 원 철 (인)

이 사 안 재 현 (인)

이 사 최 기 은 (인)